

‘치매’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법

원인과 특성 예방법 담은 책 속속 출간... ‘노인문화’에 관심 가져야

‘노망’ ‘벽에 똥칠하기’로 연상되는 ‘치매’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노화로 나타나는 이상현상으로 인식됐다. 따라서 예방법은 물론, 치매에 걸린 부모를 둔 자녀의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하면서 오로지 초인적인 인내와 효심으로 버텨내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치매가 일종의 질병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우리나라에도 전문병원들이 생겨나면서 일반인들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한 듯 서점가에는 ‘치매’ 관련서들이 속속 출간돼 눈길을 끈다.

《치매 알면 바로잡는다》(동아일보사) 《우리 부모님이 치매라구요》(프리미엄북스) 《치매 이렇게 막아요》(석탑) 《치매의 원인과 치료》(학문사) 《치매와 식생활》(선유) 등이 그것. 이 책들은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치매와 관련한 정보들을 상세하게 소개한다.

치매예방 각종 정보

《치매 알면 바로잡는다》를 쓴 양기화(전 북대 의대)교수는 미국 유학시절 치매로 사망한 사람들의 뇌를 검사하고 치매에 대한 그릇된 이해와 무지 때문에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치매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 책에서는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파킨슨 병 등 치매의 원인과 환자들의 행동 특성 등 치매의 특성을 밝힌다. 안전대책,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방식 등 간병인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상세하게 수록했다. 부록으로 국내 전문병원과 가족들이 정보를 나누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치매가족 상호모임에 대한 정보도 수록했다.

《우리 부모님이 치매라구요》(오오토모 에이치 지음/유광수 옮김) 역시 치매의 전반적인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한 책. 치매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으며 조기 발견할 수 있는지, 가정에서의 간호 요령은 어떤 것인지를 망라했다. 《치매의 원인과 치료》(이윤근·박종한)는 치매의 정신의학 적 측면과 사회사업적 개입방안 그리고 가족들의 역할을 함께 고려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우리나라 치매의 원인과 유형, 치매노인 부양부담을 줄일 수 있는 요인들은 어떤 것이며, 가정간호시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위해 배려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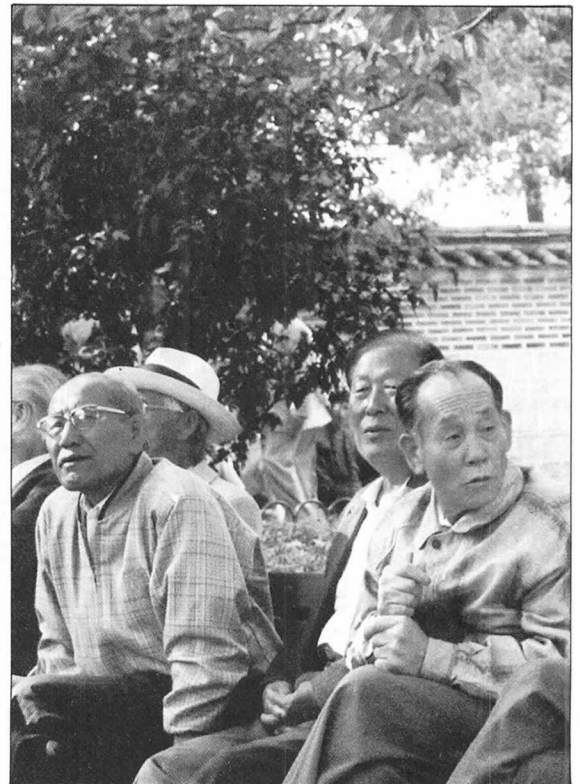
《치매 이렇게 막아요》(이자혜)는 치매예방 지침서다. 게으른 사람, 무기력하고 자신없는 태도로 사는 사람, 융통성 없고 성실하기만 한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머리를 쓰되 마음을 쓰지 마라, 항상 배우는 자세를 지녀라 등 치매예방을 위한 지침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노인을 위한 다양한 주제 개발돼야

치매가 일종의 질병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 치료법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치매의 예방이다. 관

치매가 일종의 질병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일반인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서점가에는 ‘치매’ 관련서가 속속 출간됐는데, 이 책들은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치매의 원인과 특성, 예방과 조기발견 등 상세한 정보를 들려주고 있다.

노인치매 예방에 관한 책들이 나와 ‘노인’ 출판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있다.



련서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치매예방법은 항상 머리를 쓰고 깨어 있으라는 것.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체 차원에서 치매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건강한 노인사회는 곧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임춘식(한림대 사회복지과)교수는 “노년기를 즐겁고 활기차게 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매예방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들이 즐길만한 문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인 문화란 게 따로 있을 수 있을까 싶은데 방송, 음악, 노래 그리고 출판 등 각 분야 중

사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 즐길만한 문화가 어떤 것인지 금방 알 수 있다고.

가령 노인용 출판물의 경우, 노인들을 위한 휴양시설이며 노인정·노인대학 등의 정보를 담은 가이드 북이라거나 건강서, 노년을 살아가는 지혜를 담은 책, 역사서, 회고록 등 소재는 무궁무진하다는 것. 활자를 키우고 종이도 좀 두껍게 만들어 노인들이 넘기기 쉽게 만드는 등 자그마한 배려가 노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치매’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하면 지나친 비약일까.

— 박남정 기자

주요취급간행물

- 신 문: NEW YORK TIMES/WALL STREET JOURNAL
WASHINGTON POST/LE MONDE/LE FIGARO
FRANKFURTER ALLGEMEINE/HANDELSBLATT
DIE WELT/DIE ZEIT/SOUTH CHINA MORNING POST
ARAB NEWS 외
- 시 사: NEWSWEEK/PEOPLE/FORBES/BUSINESS WEEK/LE POINT
L'EXPRESS/PARIS MATCH/LE NOUVEL OBSERVATEUR
DER SPIEGEL/STERN/FOCUS/WIRTSCHAFTS WOCHE 외
- 컴퓨터: COMPUTER GAMING WORLD/COMPUTER SHOPPER
GAME PRO/UNIX REVIEW/BYTE/PC WORLD
PUBLISH/INTERACTIVITY/VIDEO GAMES 외 다수
- 패 션: VOGUE/ELLE/COSMOPOLITAN/HARPER'S BAZAAR
VOGUE PARIS/MARIE CLAIRE/DEPECHE MODE
EMPERIO ARMANI/FASHION LINE/NEXT FASHION 외
- 기 타: INTERVIEW/ENTERTAINMENT/VARIETY/BILLBOARD
ROLLING STONE/SPORTS ILLUSTRATED/GOLF DIGEST 외

세계의 신문·잡지

세계화
정보화
지식화를
리드하는 GREEN 기업

SINCE 1963
韓國出版貿易(株)
Korea Overseas Publications Inc.

정기 구독 안내

- 매일 항공편 직수입 체계로 보내드립니다.
- 가격이 인상되어도 주문시 가격으로 구독하시게 됩니다.
- 원하시는 분께는 「세계의 신문·잡지」 책자와 SAMPLE을 보내 드립니다.
- 전화주문: (02) 735-5401/3
- FAX주문: (02) 736-3463, 735-5404
- 우편주문: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60